

< 아트어드바이저 정윤아의 『현대미술 강좌』>

8. 2000년대 미술 주요 흐름

- 세계미술시장의 규모 급성장 및 하락
- 아트 인덱스의 활용 빈도 증가(아트 펀드의 대중화)
- 아트 페어의 대중화
- 중국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급부상
- 무라카미 다카시를 선두로 한 일본 작가들의 활약
- 라이프치히 젊은 화가들의 부상

<2000년대를 이끈 미술계의 새로운 리더들>

- 일본 작가들
 1. 쿠사마 야요이(Yayoi Kusama, 1929-)
 2. 무라카미 다카시(Takashi Murakami, 1963-)
 3. 요시토모 나라(Nara Yoshitomo, 1959-) 등
- 중국 아방가르드 작가들
 - 1세대: 쉬빙(Xu Bing, 1955), 황용핑(Huang Yong Ping, 1954), 왕두(Wang Du, 1956), 장 샹오강(Zhang Xiaogang, 1958-), 왕광이(Wang Guangyi, 1956-) 등
 - 2세대: 장환(Zhang Huan, 1965-), 팡리쥘(Pang Lijun, 1963-), 웨 민준(Yue Minjun, 1962), 잔왕(Zhan Wang, 1962-), 양 사오빈(Yang Xiobin, 1966) 등
 - 3세대: 양 푸동(Yang Fudong, 1971-), 마 류밍(Ma Liuming, 1970) 등
- 라이프치히 화가들
 1. 네오 라우흐(Neo Rauch, 1960-)
 2. 다니엘 리히터(Daniel Richter, 1962-)
 3. 팀 아이텔(Tim Eitel, 1971-) 등
- 여성화가들의 활약
 1. 마를렌 뒤마 (Marlene Dumas, 1953-)
 2. 엘리자베스 페이튼(Elizabeth Peyton, 1965-) 등

[알리는 글]

4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연강홀 내부 공사로 인하여 휴강합니다.
9회 강의가 5월 19일에 있습니다.